진관사 국행수륙재 입재…'우리 모두를 위해'

국행수륙재 재건 626주년 맞이해
9월 1일 입재식…혜국 스님 법사
49일간 매주 대덕스님 법문 이어져
10월 19일 종정 성파 대종사 법문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9월 1일 경내 함월당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 국행수륙재 입재를 봉행하며 10월 19일까지 4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사진〉 매주 일요일 대덕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10월 19일 봉행될 회향식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법석에 올라 '백년을 잘 사는 법문'을 주제로 법문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를 주제로 한 이번 수륙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비롯해 이제 막 탄생한 생명과 떠난 조상, 청년과 노년, 자녀와 부모 등 세대간의 화합과 평등, 행복을 발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입재식은 도량결계, 대령, 관욕, 혜국 스님 법문, 육법공양, 상단의식, 시식, 법화경 약찬게 등 전통불교의례에 따라 진행됐다. 조계종 첫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어산으로 직접 집전했으며 진관사수륙재학교 소속 스님들과 신도회, 청년회, 어린이법회 학생까지 한마음이 돼 수륙재를 진행했다.

신중작법에 이어 법사로 나선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나라의 별이 된 이들을 위한 갑진년 축원기도로 법문했다.

진관사는 이날 입재를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함월당에서 진관사 수륙재 재건 626주년을 기념하며 대덕스님들을 초청, 법문을 이어간다.

초재인 9월 8일에는 범어사 화엄경연구원장 용학 스님이 '우리 모두 힘내자'를 주제로 법문한다. 이어 △이재 9월 15일 동국대 명예교수 해주 스님의 '아기와 어린이를 위한 행복세상' △삼재 9월 22일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의 '청소년을 위한 정말 팔팔한 덕담' △사재 9월 29일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의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 잘되는 덕담' △오재 10월 6일 전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엄마와 아빠세대를 위한 신묘한 덕담' △육재 10월 13일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의 '노년을 위한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진다. 회향식이 봉행되는 10월 19일 토요일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법상에 올라 '백년을 잘 사는 법문'을 주제로 법문한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수륙재는 상생과 평화, 나눔과 배품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진관사 수륙재를 통해 모든 중생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무량공덕을 얻어 평안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오늘은 내가 불교 교리왕!"

조계종 포교원 · 은정재단, 8월 31일
동국대 일대에서 나란다축제 개최
'범종을 울려라' 218명 참가 인기↑
상월정신 계승 안거체험도 눈길



"도전! 범종을 울려라~!" 본선에는 218명이 진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도전! 범종을 울려라~!"

여름의 끝을 알리는 8월 마지막 주말 오후, 동국대 서울캠퍼스에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함성소리로 가득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성월 스님)이 공동 주최한 '제16회 나란다축제'가 8월 31일 동국대 일원에서 열린 것. 그중 백미라 할 수 있는 불교 골든벨, 초등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팔정도 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2000여 명에 달하는 치열했던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218명의 어린이는 부모님, 소속 사찰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문제를 풀었다.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을 묻는 다소 쉬운 질문부터 육바라밀 중 계를 받아 지키는 '지계바라밀'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어졌다.

듣자마자 자신 있게 정답을 쓰는 아이가 있는 반면 간신히 답을 적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까지, 문제를 푸는 모습 역시 제각각. 불교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만다라'를 묻는 질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탈락, 총 9명의 어린이가 결승에 진출했다.

범종을 울릴 어린이를 찾기 위해 사회자는 추가로 10문제를 출제하고 점수를 매겼다. "불교기 색깔 중 부서지지 않는 '금강'을 상징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사리나 경전을 안에 모신 구조물을 뭐라고 할까요?" 등 '자비' 없는 문제들이 쏟아졌다.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대상의 영예는 구룡사 어린이법회 소속 이우빈 군이 안았다. 대상 수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우빈 군은 "작년에는 입상에 그쳐 아쉬웠는데, 이번에 대상을 타게 되어 행복하다"며 "나란다 축제를 준비하며 얻은 불교 지식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나란다 축제 기획에 직접 참여한 '학생기획위원단'이 운영하는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불교립톡' '반짝반짝 염주 만들기' 등 학생들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한편 '상월선원 안거체험'이 지난해에 이어 8월 30일 정각원에서 진행됐다. 영석고 11명 동대부고 8명 총 19명의 고등학생들은 정각원 뒤편에 마련된 야외 천막에서 수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봤다. 또 특별 다큐 '서릿달 동안거'를 시청하며 상월결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16회 나란다 축제는 이외에도 △불교교리경시대회 △상월결사 순례체험 △K-댄스 경연대회 △국악경연대회 △어울림마당 △진학·진로 엑스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0·27법난피해자모임, 남북평화 기원 역사순례

3박 4일간 중국 백두산 일대 탐방
10 · 27법난 세미나 10월10일 개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벌어진 10·27법난의 피해자들이 백두산을 방문해 남북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10·27법난피해자모임(회장 원행 스님)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박 4일간 '제44주년 10·27법난 역사순례'를 위해 중국 백두산 일대를 방문했다.〈사진〉 이번 순례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북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평화·국태민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순례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 10·27법난피해자모임 회장 원행 스님과 더불어 10·27법난피해자모임 회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순례단은 백두산 일대에서 남북평화와 국태민안을 발원하는 기도를 올린 뒤, 중국 화엄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어 10·27법난피해자모임의 임원 선출식도 가졌다. 피해자 모임 수석부회장은 중하 스님이, 차석부회장은 한영수 씨가 소임을 맡았다. 감사로는 혜운 스님과 이근우 씨가 선출됐다.

한편, 10·27피해자모임은 '10·27법난 피해자 개인보상'을 주제로 오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연다.

김가령 기자

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서쌍교·서진영 추천

대한불교진흥원 8월 30일 발표
BBS노조 "깜깜이 공모" 비판도



서쌍교



서진영

BBS불교방송 후보로 서쌍교 SBS 보도본부 부국장과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장이 추천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는 "불교방송 사장 후보 응모자 중 서류심사 선정 대상자의 면접 심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불교방송 사장 후보자로 서쌍교·서진영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쌍교 후보자는 BBS보도국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SBS보도본부 기자, 네트워크 팀장, 사회부장, 중국특파원, 경기북부(의정부)지국장 등을 지냈으며 대불련총동문회 이사,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위원, 연변과기대 연구원, 베이징 중앙민족대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SBS보도본부 부국장을 맡고 있다. 법명은 봉원(逢源).

서진영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대우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및 재허가 심사위원, KBS-1라디오 '라디오 시사고전' 진행자 등을 역임했다. 현대자동차, 삼성그룹, 우리홈쇼핑, BBQ 그룹 등 국내외 기업 전략 및 인사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 현재 자의누리 경영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법명은 일심(一心).

하지만, 이번 추천에 대해 불교방송 내부에서는 '깜깜이 공모'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언론노조 BBS지부(지부장 황민호, 이하 불교방송노동조합)는 진흥원의 사장 후보 추천에 반발하며 8월 29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황민호 지부장은 "진흥원은 후보자 면접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철저히 밀실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누가, 몇 명이 면접을 봤는지 등 일반적인 사항조차 BBS 측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교방송노조는 "타 언론사 출신이 아니며 경영 능력을 갖춘 사장을 원하는 BBS 직원들의 이 같은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